

## HFC망장비 중국입망증 획득

동양텔레콤

광전송망장비업체인 동양텔레콤(대표 정충모 <http://www.dyt.co.kr>)은 중국 입망증 허가기관 SARFT(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로부터 광전송망장비(ORX·OTX·ONU·TBA·UPS 외)에 대한 입망증을 획득했다.

입망증은 해외 업체가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제품을 공급할 자격을 인정받는 일종의 수입허가증이다.

동양텔레콤은 자사가 중국에서 입망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HFC망 장비업체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동양텔레콤 배석주 전무는 “이번 인망증 획득으로 중국 거대 초고속통신 인프라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 디지털TV용 인공지능 DY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세계최초로 디지털TV용 인공지능(MICOM) DY를 개발, 오는 12월부터 수원공장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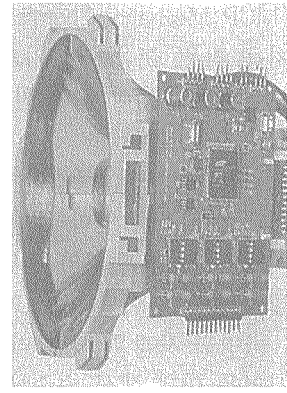
DY(편향코일)는 TV나 모니터의 브라운관 전자총에서 나오는 RGB(RED, GREEN, BLUE) 삼색 주사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스크린에 화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이다.

기존 DY제품은 수평수직코일로부터 자연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 주사선이 수동적으로 움직였으나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DY는 인공지

능칩을 내장, 주사선의 방향과 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삼성전기는 인공지능 DY를 채용한 브라운관의 경우 전자총에서 나온 주사선이 화면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가 디지털TV가 필요로 하는 자연그대로의 색상과 고해상도의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이 인공지능 DY의 핵심인 컨트롤 IC를 직접 설계, 국내외에 특허출원했으며 현재 제품 납품을 위해 국내외의 브라운관 및 디지털TV 제조업체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나노 파우더 파일럿 라인 기동

삼성코닝

삼성코닝(대표 박영구 <http://www.samsungcoming.co.kr>)은 수원공장에 차세대 초미립자 소재 기술로 각광받는 ‘나노파우더’를 시험 생산할 파일럿 라인을 구축, 지난 11월 1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1년 6개월간의 기술 개발과 총 30억원을 투자한 이 라인은 세륨(CeO2)의 산화물질인 세리아로 반도체 웨이퍼 표면 연마 재료로 쓰인 ‘세리아 나노파우더’를 시작으로 삼성코닝의 나노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삼성코닝은 입자 크기를 손쉽게 제어하며 공정도 단순한 기상기계화학적공정

(MCP: Mechano Chemical Process)을 업계에선 처음 적용, 고온에서 기체화하면서 입자를 만드는 기존 공정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두배나 높였다고 밝혔다.

'세리아 나노파우더'는 개개 입자를 분리한 상태로 제조해 연마시 발생하는 흠집을 크게 줄여 유기EL용 유리 및 정밀광학부품과 같은 초정밀 제품도 연마할 수 있다.

박영구 사장은 이날 가동식에서 "나노 파우더 사업을 미래 핵심 수종사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코닝은 2003년께 세리아 나노파우더를 양산해 2005년 300억원, 2010년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 △자외선 차단용 알루미늄 나노파우더 △측매용 지르코니아 나노파우더 △디스플레이용 ITO 나노파우더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코닝은 호주의 벤처기업인 APT사와 합작해 자본금 1200만호주달러의 ANT사를 설립해 이번 세리아 나노파우더를 개발했다.

## ● 세계에서 가장 얇은 MP3 CDP 개발

아이리버

MP3 CD플레이어가 휴대형 CD플레이어 시장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MP3 CD플레이어를 개발, 세계 휴대형 오디오시장 석권에 나섰다.

MP3플레이어 개발업체인 아이리버(대표 양덕준 <http://www.iriver.co.kr>)는 MP3 CD플레이어로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16.7mm급 MP3 CD플레이어(모델명 슬림엑스)를 개발했다.

휴대형 오디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니·아이와·파나소닉·필립스 등도 아직까지 두께 30

mm 이하의 MP3 CD플레이어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리버가 개발한 MP3 CD플레이어는 기존 오디오CD 전용 휴대형 플레이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기존 MP3 CD플레이어와 비교하면 평균 10mm 이상 얇고 소니의 최신 오디오 CD플레이어인 'EJ855' 모델이나 최고급형 제품인 'D-E01' 모델보다도 얇다.

무게도 180g으로 시중의 고급 휴대형 CD플레이어보다 평균 30~40g이상 가볍다.

또 이동중 충격에 따른 음악의 끊김 및 튜 현상도 최대 480초 동안 방지해주며 연속 재생시간도 23시간으로 휴대형 제품의 단점이었던 전원문제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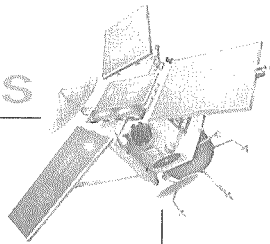
이 회사 양덕준 사장은 "그동안 MP3 CD플레이어는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기존 CD플레이어에 비해 두껍고 무겁다는 이유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제 적어도 성능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휴대형 CD플레이어 업체인 소니와도 대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 기존 CD플레이어 시장을 대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리버는 이 제품을 간판제품으로 삼아 내년초부터 전자제품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자체 브랜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 현지에 설립한 아이리버아메리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미국 홈쇼핑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 ● 2인치 풀컬러 유기EL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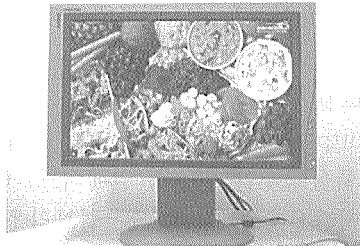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대표 조한구 <http://www.orion.co.kr>)



가 2인치급 26만 컬러수동형(PM) 유기EL을 개발했다. 두께가 액정표시장치(LCD)의 절반인 1.65mm에 불과한 이 제품은 10V, 100mW의 저전압, 저전력소비로도 150~200cd/m<sup>2</sup>의 고휘도를 구현했다.

또 170도의 넓은 시야각과 함께 LCD의 1000배에 이르는 응답속도를 구현해 IMT2000 등 차세대 휴대기기용 디스플레이로 적합하다. 오리온전기는 지난 99년 개발한 5인치급 풀컬러 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설비와 보급형 액정표시장치(STN LCD)라인의 유희설비를 활용해 내년중 제품양산을 적극 검토중이다. 3년 전 고등기술연구원과의 공동개발 활동을 통해 유기EL 사업화를 추진한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자체 개발에 들어가 이 제품을 선보였으며 4인치급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니터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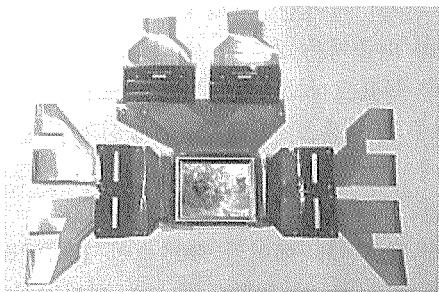
보통 15인치 LCD모니터가 1024×768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3배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 제품은 의료용, 그래픽디자인, 필름인화, 항공관제, 초정밀 CAD, 건축 및 토목 시뮬레이션, 문서편집 등의 특수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됐다.

이 제품은 기계장치에 의해 모니터 화면이 자동적으로 상하 125mm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렌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에 의해 90도 회전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비디오 신호를 지원, TV나 DVD 등의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DVI단자도 내장, PC의 디지털 영상출력 신호를 곧바로 모니터에 띄워 보다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와이드의 임연섭 대표는 “이미 국내외에서 1000여대(40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이 진행중이며 국내는 물론 미국 및 아시아, 유럽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00만원대 24인치 LCD모니터 개발

와이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24인치 LCD모니터가 개발됐다.

의료, CAD 등 특수모니터 전문개발업체인 와이드(대표 임연섭 <http://www.widcorp.com>)는 삼성전자의 24인치 LCD패널을 사용, 1920×1200(16대10)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대형 LCD모

### 국내 순수기술로 PDA 핵심부품 및 솔루션 개발

에이디칩스

핵심부품과 운용체계(OS)까지 국내 기술력에 의해 개발되는 순수 국산 개인휴대단말기(PDA)가 등장할 전망이다.

시스템IC 전문업체 에이디칩스(대표 권기홍 <http://www.adc.co.kr>)는 인프라웨어(대표 유병훈 <http://www.infraware.co.kr>), 한국MDS(대표 김현철 <http://www.hkmds.com>), 서울대 홍성수 교수팀(<http://redwood.snu.ac.kr>) 등과 손잡고 PDA의 핵심부품인 내장형(임베디드) CPU에서부터 실시간운영체계(RTOS), 웹브라우저, 개발툴까지 PDA 토탈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에이디칩스는 자체 개발한 확장명령어구조(EISC) CPU 코어 기술과 레퍼런스보드·컴파일러 등을 제공하고 한국MDS와 서울대는 RTOS '벨로스'를, 인프라웨어는 임베디드 웹브라우저 '임바이더'를 각각 제공, 최적화시킨 PDA솔루션을 내년 2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3사와 서울대는 이를 국내 PDA단말기 제조업체에 공급, 적시에 제품개발을 지원해 발권·물류·금융·경매·증권·골퍼용 PDA 등 산업용 PDA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냉장고, 인터넷 전자레인지 등 인터넷 정보가전 개발업체에도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을 공급,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디칩스 권기홍 사장은 "이번 제휴는 각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기술진들이 모여 경쟁력 있는 국산 토탈솔루션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포스트PC 시장에서 외산에 종속되지 않고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G에어컨 휘센,  
2년 연속 세계시장 제패**



LG전자(대표 구자홍 <http://www.lge.com>) 에

어컨 '휘센(WHISEN)'이 2년 연속 세계 에어컨 시장 1위로 등극했다.

일본의 세계적 냉동공조 전문잡지인 'JARN 紙'(11월호)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세계 에어컨 시장(약 4,236만대 규모)에서 490만대(15억 弗)를 팔아 점유율 11.6%를 차지, 410만대를 판매했던 지난해에 이어 세계시장을 제패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세계 TOP 브랜드를 차지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은 1) 가정용 에어컨의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지역 생산확대 2) 중동, 미국 및 유럽 지역 등 각 지역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성공 3) 상품기획 - 개발 - 생산 - 판매 - 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한 높은 품질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LG전자 에어컨 사업부장 노환용 상무는 "Global 매출액은 2003년 22억달러, 2005년 35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은 물론, 글로벌시장 개척에 집중해 세계 에어컨 시장을 리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에어컨 총매출인 13억달러(\$) 가운데 15%에 불과했던 시스템 에어컨의 비중을 2005년까지 40%선으로 확대해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종합 에어컨 메이커로써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LG전자는 올해 세계시장 2연패의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도 내수시장 점유율 50%, 상업용 에어컨을 포함한 세계시장 점유율 12% 이상(550만대 판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에어컨 1위 업체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